제1강 철학의 탄생: 그리스, 중국, 인도 I

(1교시)

▲ 철학사와 철학은 순환 관계를 이룬다. 철학의 변화는 철학사의 이해를 변화시킨다. 철학사의 새로운 발굴은 철학을 변화시킨다. 즉 이 둘은 늘 맞물려 존재한다. (외연과 내포의 순환성)

▲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르는 담론은 오늘날 영어식으로 '그리스'로 불리는, 그러나 당사자들은 '헬라스'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모든 문명에는 나름대로의 철학적 토대가 깔려 있다)

▲ 이 때의 헬라스란 오늘날의 특정한 국가로서의 그리스가 아니라 에게해를 둘러싼 지역 전체를 뜻했다. 서쪽의 그리스 반도, 남쪽의 크레타 섬, 동쪽의 트로이 지역, 그리고 코카서스 산맥 지역으로 구성된 이 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한가운데에 에게해라는 바다가 위치해 있고 육지가 그것을 빙 둘러싸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구조는 이 지역에서 거대 권력이 등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냈으며, 바다를 중심에 두는 해양 문화가 발달하게 만들었다. 거대 권력의 억압을 탈피할 수 있었기에, 헬라스 인들은 '그리스의 기적' 즉 민주정치의 탄생과 철학의 탄생을 이룰 수 있었다.

▲ 헬라스 지역의 역사는 두 개의 커다란 전쟁을 분기점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전쟁은 트로이 전쟁이고 두 번째 전쟁은 페르시아 전쟁으로서, 두 경우 모두 그리스 본토와 오리엔트 지방 사이의 충돌을 보여준다. 그리스의 역사는 페르시아 이전의 '상고(antique)' 시대와 이후의 '고전(classique)' 시대로 나뉜다. 철학의 역사 역시 대체적으로 페르시아 전쟁 이전의 '자연철학' 시대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후의 시대로 나뉜다.

▲ 헬라스의 역사에 대해서는 서기전 8세기(이하 모두 서기전)에 씌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오뒤세이아』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 드라마들을 통해서 연구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와 비약적으로 발전한 고고학적 성과들을 통해 그 연대가 500년 정도 더 내려가게 되었다. 1400년경으로 추정되는 크노소스 대화재 때 남겨진 점토판들에 새겨져 있던 '선문자(線文字) B'의 해독으로 지금은 대략 2000년 정도까지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좀더 구체적 논의가 가능한 것은 약 1500년경부터이다.

▲ 약 13세기-12세기로 추정되는 트로이 전쟁은 헬라스 문화를 이해하는 첩경이다. 전설상의 시인 호메로스는 이 시대를 서사시로 읊었으나, 실제 그가 모델로 한 것은 9세기, 8세기의 헬라스 사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신화적 배경과 실제 배경
2) 뮈케네 문명과 아가멤논 가(家)의 운명

www.artnstudy.com

3) 호메로스의 인간관
4) 운명의 주제
5) 정치경제적 배경
6) 트로이 전쟁이 남긴 것

(2교시)

▲ 서사시 시대로부터 서정시 시대로 옮겨가면서 정치 상황이 변한다. 7세기에 서정시가 유행하면서 허무, 죽음, 고독, 사랑 등이 주요 주제가 되었고, 서사시에 비해 대중적인 서정시는 당대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귀족정의 몰락과 '다모스(데모스)'의 등장: 사회가 혼란스럽고 역동적으로 변하면서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참주(僭主)들'이 등장, 처음에는 선정(善政)을 펴곤 했으나 결국 독재로 빠지곤 하였다. 여러 차례의 개혁(특히 솔론의 개혁)을 통해서 점차 민주정이 자리 잡게 된다.

* 솔론은 평민에게 재산 소유 정도에 따라 정치 참여권을 부여하자고 하였다. 이것을 금권정이라고 한다. 금권정은 한편으로는 장점이 있었으나 재산이 적은 평민들에게는 정치 참여의 기회가 적었고 재산이 많은 평민들 위주의 정치가 되었다. 결국엔 귀족정의 하나인 것이다.

▲ 허무의 시대를 배경으로,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철학이 탄생하였다. "이 허무한 세상에 참되고 영원한 것은 없을까?"
서사시, 서정시 시대(운문)에서 6세기가 되면 산문(散文)이 등장하고, 퓌타고라스 학파가 처음으로 '철학자(philosophoi)'라는 말을 썼다. 이때의 철학이란 오늘날의 순수 학문 전체를 포괄한다.
: '로고스(이성)'의 탄생

www.artnstudy.com